

이렇게 들었다

참회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12일 성베드로 성당에서 집전한 '용서의 날' 미사에서 십자군 원정, 마녀사냥, 종교재판, 유대인탄압, 신대륙 발견시 원주민 학살 등 지난 2천년간 저지른 가톨릭의 과오를 공식으로 인정하고 참회했다. 이를 두고 세계의 여론은 늦은감이 있지만 획기적인 일로 받아들이며 반기고 있다. 이번 교황의 과오인정은 역사적 오류와 범죄를 반성하고 고백하는 진실에 대한 용기에서 시작된 대한장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이슬람과 기독교를 비롯한 종교들간 충돌가능성이 높아져 3차 세계대전의 경우 종교전쟁이 될 것이라는 '문명충돌론'이 고개를 들고 있는 시점에서 교황청의 반성은 세계의 평화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종교는 모름지기 성찰을 통한 실천으로 사회를 밝혀주고 선도하는 기능을 해야한다. 이번 가톨릭의 참회를 계기로 우리 불자들도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저지른 무수한 잘못을 진실로 참회해 보자. 참회와 관련된 부처님말씀을 듣는다. <편집자>

번뇌 쉬고 화해로 가는 길

■만일 능히 법답게 참회하면 있는 바의 번뇌를 다 제거함이 마치 겉화(劫火)가 세상을 무너 뜨리고 수미산과 대해를 태워버리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참회는 능히 번뇌의 설을 태우고, 사산(四禪)의 낙을 얻고, 마니보주를 비추고, 상락의 궁(常樂宮)에 들어가고, 3계의 욕을 뛰어내고, 보리의 꽃을 피우고, 부처의 대원경(大圓鏡)을 얻어서 보소에 이른다. <십지관경>

■본래 자기가 지은 것은 자기가 스스로 받나. 악을 지었을 지라도 스스로 고치면 강철로 구슬을 뚫는 것 같다. <법구경>

■과실로 비악(非惡)을 범할지라도 능히 뉘우치면 선이 되어서 공덕을 잃어버리지 않나. 참과가 있는 사람은 선법이 있고 참과가 없는 사람은 집승과 다름이 없다. <유교경>

■괴로움을 두려워하거나, 괴로움을 좋아하지 않거든 부디 나쁜 일 행하지 말고, 나쁜 일 생각하면 곧 후회하라. <출요경>

■부처님께서 살아 계시는 때, 술을 무척 좋아하는 노공(老公)이 있었다. 아난이 가서 권유하여 부처님 처소에 오기를 권하였으나 거절하였다. 그 날 술에 취하여 집으로 돌아오다가 나무에 부딪쳐 넘어져 많은 상처를 입고 곧 후회하였다. 부처님께서 노공에게 물으셨다. "오백 차에 가득 실린 설을 태워버리고자 한다면 몇 개의 불을 쓰면 되는가?" 많은 불은 필요치 않습니다. 팔알만한 불로 잠깐 사이에 태워버립니다. "공은 그 옷을 입은 지 얼마나 되는가?" "1년 됩니다." "그 옷을 씻어서 때를 지우는 데는 몇 해나 걸리겠는가?" "물 한 말이면 잠깐 동안에 깨끗이 씻습니다." "공의 쌓은 죄도 오백 차의 설과 같고 또한 1년 된 옷 때와 같다." 이 말을 들은 공은 곧 깨달아 오

계를 받아 가지고 뜻이 환하게 열리었다. <집아함경>

■부처님께서 사위성 기원정사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까마귀 같은 사람이 있고, 돼지 같은 사람이 있다. 까마귀는 배고픔에 쫓기다가 문득 더러운 것을 먹고서는 곧 주둥이를 닦는다. 다른 새들이 더러운 것을 먹었다고 비난할까 두려워서이다. 이처럼 어떤 사람은 한쪽 한 곳에서 욕심으로 악행을 하다가 문득 부끄러워하고 스스로 뉘우쳐 제가 한 일을 남에게 말한 것 모르고 뉘우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뽐내고 자랑하는 것이 마치 돼지가 항상 더러운 것을 먹고 더러운 곳에 뉘우 있으면서 다른 돼지 앞에서 뽐내는 것과 같으니라." <중일아함경>

■비록 무거운 죄를 지었더라도 뉘우치고 다시 범하지 않으면 계율을 따르는 법이 되나. 그 죄의 뿌리가 뽑혀지리라. <중일아함경>

■만약 여러 가지 죄를 지었으면 숨기지 말고 감추지 말 일이다. 숨기지 않으면 죄가 가벼워질 것이며, 만약 부끄러움을 느낄 때는 죄가 소멸될 것이다. <열반경>

■제가 저지른 불선(不善)에 참회한 마음을 지니며, 모든 부처님께 부끄러운 마음을 일으켜, 참과를 갖추어 욕근을 지닌다면, 일체지(一切智)의 마음이 빛나게 갈아지리라. <해의보살소문경>

■아무리 큰 죄를 지었더라도 뉘우치면 허물은 얽어져 악의 근본은 사라지나. 자신이 지은 악업을 벗어나게 할 사람은 부모도 아니요 형제도 아니며 권력이 나 재물도 아니니라. <중일아함경>

신행 캘린더

- 3월22일(수)**
 - 원우회 무비스님 초청 '금강경 강좌' 법회=원우회는 오후 6시30분 불교회관 1층에서 무비스님을 초청, 금강경 강좌 법회를 마련한다. 02)732-4923
 - 청광화백 달마도 특별전=신어산 은하사 3천3백관 범종불사 기금 마련을 위한 '청광 화백 달마전'이 부산 국제신문 전시관에서 열린다. 0556)674-6625
- 3월23일(목)**
 - 강화 선원사 4천일 기도 일제식=강화 선원사는 오전 10시30분 선원사 복원을 위한 '4천일 지장기도 일제식'을 봉행한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김장택목사를 초청한다. 032)934-8484
- 3월24일(금)**
 - 강경구교수 '북한 역사와 사회...' 강좌=좋은 벗들에서는 강경구 교수(동국대 사회학과)를 초청, 저녁 7시30분 정토회관 3층 강당에서 '북한 역사와 사회의 이해'를 주제로 통일 강좌를 마련한다. 02)587-8996
 - 광주 밀교리 대법회=광주 영광심인당은 오후 2시 심인당 법당에서 '밀교리 대법회'를 봉행한다. 이번 법회에서는 혜정 대정사가 설법한다. 062)263-5272
 - 중앙무용문화원 무용 대공연=(사)중앙무용문화연구원은 저녁 7시30분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승무' '대궐' '부채춤' 등 한국의 대표적인 무용 작품을 무대에 올리는 '무용 대공연'을 개최한다. 02)866-8880
- 3월25일(토)**
 - 동불회 15기 강화선원사 정수사 순례=동국대 동불회 15기는 26일까지 무박 2일 일정으로 강화 정수사와 선원사지 사할 순례를 떠난다. 출발은 저녁 7시 조계사 앞. 032)937-3611
 - 티사랑 대행사·백련사 답사=티사랑대행사는 26일까지 무박 2일간 동백곶이 어우러진 절경으로 유명한 백련사를 찾아 간다. 돌아오는 길에는 대흥사와 다산초당, 무위사 등을 둘러 본다. 역사탐방연구회 영산급선봉이 안내한다. 참가비는 5만원. 출발은 저녁 8시 안국역 앞. 02)725-1284
 - 여래지답사회 도갑사 순례=여래지답사회는 깎아지른 듯 장엄한 월출산과 도갑사를 26일까지 무박 2일 일정으로 순례한다. 이어 천왕사와 구정봉에서는 마애석불도 구경할 수 있다. 참가비는 5만1천5천원. 출발은 25일 밤10시 압구정동 현대백화점 주차장. 02)3445-0202



◇고즈넉한 주말 오후 새싹 불자들이 마련하는 음성 공양에 귀를 기울여 보자. 한시간 쌓인 피로가 눈뚫듯 사라지며 울려 퍼지는 법음의 메아리속에 진정한 법열도 만끽할 수 있을 것이다.

- 한마음선원 어린이 합창제=안양 한마음선원은 오후 7시 안양문예회관에서 결석아동복지 '어린이 합창제'를 마련한다. 0343)470-3100
 - 진각스카우트 지도자 모임=진각스카우트단은 2001기 기본 훈련생과 진각 스카우트 대장들을 대상으로 오후 3시 진각문화회관 7층 회의실에서 모임을 개최한다. 02)913-0751
 - 중리복지관 도예교실=중리종합사회복지관은 오후 2시 지역내 아동들 대상으로 광리도예원에서 도예교실을 연다. 0551)231-8017
- 3월26일(일)**
- 조계사 관음회 군부대 방문법회=조계사 관음회는 과주지역으로 군부대 방문 법회를 떠난다. 포교국장 본오스님이 법문한다. 02)732-2115
 - 정토 불교통신대학 입학식=정토불교대학은 오후 1시 서초동 정토회관에서 '정토불교통신대학' 입학식을 거행한다. 02)687-8994
 - 백용성 유추추위원회 논산훈련소 수계법회=백용성조사유추위원회는 오전 10시 논산훈련소 호국 연무사에서 '백용성조사 입멸 제60주기 기념 수계법회'를 봉행한다. 0461)741-3734
 - 강남포교원 철야정진 법회=강남포교원은 저녁 8시부터 대웅전에서 1080배 철야 정진법회를 봉행한다. 수선당에서는 철야 참선 정진법회도 함께 열린다. 02)539-2631
- 3월28일(화)**
- 노사나혼성합창단정기연주회=(사)불교음악협회 산하의 노사나 혼성합창단이 오후 7시 호암아트홀에서 '정기 연주회'를 갖는다. 02)751-9997

법회안내

- 법왕사 백고좌 법회**
- 정류 조계종 총회의 원스님은 23일 오전 11시30분 대구 법왕사 대웅전에서 '경율론, 삼장 백고좌법회'에 초청돼 '법화경 제1서품'을 주제로 법문한다. 053)766-3747
- '종교와 복지' 법문**
- 보각 중앙승가대 교수 스님은 30일 저녁 7시 조계사 대웅전에서 '대승회 창립 10주년 특별법회'에 초청돼 '종교와 사회복지'를 주제로 법문한다. 02)736-4848
- 3월 다보법회 설법**
- 도법 실상사 주지스님은 22일 오후 2시 불교방송 3층 대법당에서 봉행되는 다보법회에서 법문한다. 02)703-0108
- 25일 영불정진법회**
- 의은 불광산사 주지스님은 25일 오후 2시 불광산사 대웅전에서 '영불정진법회'를 맞아 법문한다. 02)2276-0993
- ▲참선·회두 참구법=수선회는 4월11일부터 1개월동안 '참선반 제50기 교육' 수강생을 모집한다. 과목은 참선목적과 자서, 선종발달사, 회두의 중요성, 회두참구법 등. 02)732-5960
- 이전**
- ▲부산고려불교예술회는 18일 부산시 진구 연지동 미하리아리야 부대 정문 앞 건물 3층 대강당으로 이전했다. 051)807-6842
- 화측**
-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 박찬미씨는 26일 낮 12시40분 서산시 예원예식장에서 회원호회를 신랑으로 회측을 밝힌다. 02)739-1830
- 부음**
- ▲진각중 통리위원장 성초대정사의 모친 권병달여사가 17일 낮 12시 숙원으로 별세했다. 발인 20일 오전 6시. 삼성의료원 02)913-0751~4

게시판

글 아동을 대상으로 기초학습교육, 야외봉사활동 등을 실시한다. 051)893-5034

▲재활용품=구로종합사회복지관은 의류, 신발, 가구, 가전제품 등 알뜰시장에서 판매할 중고 생활 용품을 모으고 있다. 판매된 수익금은 결식아동 및 불우 노인들의 무료 급식에 이용된다. 02)852-0525

강좌

▲직업훈련=한울종합사회복지관은 성인을 대상으로 한 취업교육 강좌를 마련했다. 한식·양식 조리 기능사, 컴퓨터 자격증, 종이접기, 꽃병 경영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실시된다. 0342)716-4215

▲불교 수회=조계사 장애인 포교 원심회는 4월3일부터 3개월동안 불교 수회강좌를 개설한다. 강의는 월·목요일 저녁7시, 수강료는 4만원. 02)720-4528

▲중급 참선교실=부산불교교육원은 중급 참선교실을 개설한다. 개강은 23일이며 매주 목요일 주간과 야간으로 나눠 실시한다. 접수인원은 40명 선착순 마감. 051)466-4080

▲장애인 취미교실=재천장애인종합복지관은 장애인들을 위한 서예·한지공예교실을 개설한다. 화·목요일 주2회, 12월까지 1년과정이며 회비는 연 1만원. 0443)652-0900

▲무료 시민대학 강좌=불교 자원봉사연합회는 6월28일까지 3개월간 '제11회 자원봉사 시민대학 2000년 불학기 강좌'를 연다. 이번 강좌에는 수지침, 원왕생, 불교호스피스, 수화, 환경교육 등 6개 과목이 마련된다. 02)723-6258

▲포교사 양성반=경남 함안대양사는 국내의 포교사를 양성하는 '불교 법보 대학원' 과정을 개설했다. 0552)582-5056

알고싶은 불교상식 100가지

100문 100답

정승석 교수의 명쾌한 풀이! 100문 100답! 개정판

불교를 쉽고 바르게 풀이한 100가지 문답!

불교의 기초가 되는 이 100가지만 알면, 누구라도 자신있게 불교를 말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불교입문서!
언제 어디서나 얘기하고 싶은 불교!
누구에게나 말할 수 있는 불교!
100문 100답에서 찾아드립니다.

정승석 교수의 글은 잔잔하고 자상합니다. 정승석 교수는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교수로 계시며 <차한전을 마시며 나누는 불교교리> <고려대정경 해례> 등 10여 권의 저서가 있습니다.

*교양대학 및 사철의 법보시 주문 받습니다.

민족사 전화 02)732-2403~4 팩스 02)739-7565

천오백만 불자들의 가슴을 울리는 불교 명언집!

가슴을 적시는 부처님 말씀 300가지

석성우·석지현 스님 엮음

하루 한 구절, 부처님 말씀 300가지!
1년이면 당신도 훌륭한 법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인생하거나 탐내거나 질투하지 마라.
욕심을 채우고자 정의를 등지지 말고
원망을 원망으로 감지 마라.

<가슴을 적시는 부처님 말씀 300가지>와 <부처님께 배운 소중한 말씀 300가지>는 불교의 여러 경전과 조사 선지식들이 남긴 말씀 가운데서 주옥 같은 명언들을 뽑은 것입니다. 이 책은 치성하게 들끓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게 합니다.

46판 양장 / 값 5,000원

민족사 주권입니다. 가까운 이에게는 선물로, 은혜 받은 이에게는 법보시로서 이 책을 선물합니다.

"가슴을 적시는 부처님 말씀 300가지"에 이어 "부처님께 배운 소중한 말씀 300가지"도 나왔습니다.

부처님께 배운 소중한 말씀 300가지

정류스님 엮음(시인, 불교신문 사장) 46판 양장 / 값 5,000원